

지역 소식통

정읍, 무인 방역 부스 설치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청사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정읍시청 본관과 의회관, 정읍역, 터미널 등 4개소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차단·정화하는 에어사워 방역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청과 주요 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청사와 터미널, 정읍역 방문객은 AI 안전인식 체온 카메라에서 화면과 음성으로 정상 여부를 확인 후 전신 방역 소독기를 통한 소독을 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에어사워 방역 부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설치해 3단계 필터링으로 공기를 살균, 소독하고 광촉매 방식으로 살균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제거된다.

또한, 발열 등 이상 감지 시 경보음과 비상등이 동시에 작동되며, 개방형 부스로 많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화학 약품 기반 방역 부스는 오히려 해로운 독성 부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반면,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광촉매 방식으로 살균제가 필요 없어 안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K-water 정읍권지사 물사랑 나눔단, 설맞이 떡국 나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지사장 김철한) 봉사 동아리 물사랑나눔단은 최근 정읍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기찬)와 함께 '정읍지역의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김철한 지사장 및 직원들은 자연 재난으로 여름철의 비 피해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24시간 늘 긴장하며 지역을 위해 일하는 중임에도 "설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더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청년구직지원금' 등 13개 사업 시행

고창군이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 고창'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농 혼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사업으로 끼와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1월말 기준) 지역 청년을 위한 13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고창형 청년구직지원금'은 지역내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150여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 100만원

을 지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원금을 받고 6개월 뒤 취업에 성공한 한 청년은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또 '청년어촌정착지원(월 100만원 상당, 1년간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월 200만원 상당 임금지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년 700만원 위탁교육비 지원),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월 188만원 상당 10개월 지원), 청년취업지원사업(월 50~65만 원씩 12개월 지원), 농어업법인청년일자리사업(청년채용시 1인당 매월 170만원씩 12개월 지원) 등이 촘촘하게 짜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디지털전

문분야 일자리', '비대면 문화예술 시스템 구축지원', '온택트 맞춤형 축제 기획 및 홍보 지원'이 각각 진행되는

다. 이에 더해 올해도 '문화예술 코드

네이터사업'이 진행되며 문화예술분야 청년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밖에 최근 고창군이 동우팜투데이

블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청년들과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련 기업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창에서의 직접고용인력만 650명, 간접고용(문헌인 등) 490명까지 더해지면 11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청년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전국 청년정책과 각종 정보들을 한데 모아 놓은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석 기자

고창군, '안경나라 콘택트' 백년가게 선정

전북지역 롤모델로 자리매김

고창군 '안경나라 콘택트'가 전북지역 백년가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창읍 '안경나라 콘택트'를 전북지역 백년가게에 선정했다. 향후 전북지역 백년가게의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안경나라 콘택트'는 조은상 대표(64)가 25세부터 시작해 40여년 넘게 아내와 아들까지 2대에 걸친 안경전문가 집안이 운영하는 고창군의 대표



고창군 '안경나라 콘택트' 대표 조은상은 전북지역 백년가게에 선정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경점이다.

조은상 대표는 "40년 안경과 함께 한 시간이 더 뜻깊게 느껴진다. 고창군민들과의 깊은 신뢰가 큰 자산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일해 백년가게와 안경나라 콘택트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년가게는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맥류 생육재생기 포장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맥류 재배 농가에 2월 중순 생육재생기에 따른 작물의 빠른 생육 회복을 위해 웃거름 시비와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평균기온이 낮으며 특히 1월 8~9일에는 -17℃까지 떨어져 세심한 포장 관리가 필요하다. 기상 상황과 생육상태를 고려한 정읍지역의 맥류 생육재생기는 2월 14일~15일 사이로 10일 이내에 추비 시용을 해줘야 월동 후 생육 회복이 빠르다. 웃거름으로는 1필지당 요소비료 2

포(10kg/10a)를 뿌려줘야 하며, 과다 시비하면 5월 등숙기에 도복의 위험이 있으니 적정량을 시비해야 한다.

생육이 불량하거나 토양 상태가 나쁜 포장은 5kg씩 15일 간격으로 2회에 나누어 살포해야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배수가 불량해 습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배수구를 깊게 정비하고 습해를 심하게 입은 맥류에는 요소 2%액(100L당 2kg)을 10a당 100L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잡초 방제 방법으로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에 벤타존액

제(밭사그라, 풀반장 등) 물 100L당 30ml를 사용해 10a(300평)에 살포해야 한다. 맥류 중에서도 보리와 밀, 귀리 등에 적용되는 약제가 다르므로 PLS 제도에 따른 농약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맥류의 생육재생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지상부 1cm 부위에서 잎을 잘라 속잎이 드러나는 것이 관찰되거나 뿌리에 백색의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랐을 때 생육재생기로 판단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리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하순 적기에 파종한 지역에서 웃거름이 관찰되어 웃거름을 과다 시비 시 도복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정읍분과' 위원 20여 명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민참여 소통 행정 구현

정읍시-시민소통위 소통정읍분과, 시정발전 간담회

유진섭 시장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주 앉고 다양한 현안 사업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17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정읍분과' 위원 20여 명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장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추진된 시정발전 간담회는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장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7기 시장 핵심사업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발전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광복소독기 설치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시장과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지역 민생 경제 대책, 주요 현안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읍 미래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부안군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설·확대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보건소 방문없이 임신부 등록 및 우울증자기진단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신부들의 편의가 증대됐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만18세 이하에서 만19세 이하로 확대되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혼인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부안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없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최대5회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대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